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이석우^{1*}, 이주형¹
¹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Changing Process in Ancient Mesopotamia cities

Lee, Seok Woo^{1*} and Lee, Joo Hyung¹

¹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요 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기전 3800년경에 시작된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하여 서기전 600년경 사라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문명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중첩되며 발달하였다. 하기에 3000여년간 지속된 도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본은 초창기 인류문명과 도시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 시기에 있었던 30여개의 도시 중 13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도시의 기능이 농경문화에서 점차 상업, 무역, 군사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도시의 위치가 도시기능과 연관되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점차 북부로 이동하고 있었고, 셋째 도시의 형태는 ‘텔’이라는 구릉위의 도시형태가 점차 평지로 내려오고 있었고 나중에는 지형에 의지하지 않는 계획도시의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넷째 신전중심의 도시구조가 왕궁 중심의 도시 구조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Mesopotamia civilization is developed by physical geography. It began from Sumer civilization at BC 3800 and finished to Assyria and Babylonia civilization at BC 600. Therefore,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ity of 3,000 years standing,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lements of the influence to the initial human civilization and city. This study analyzed the 13 cities, that the city were among the 30 the city in same 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functions of the city were gradually transition from the farming culture to the functions of commerce, trade, and military. Secondly, the location of the city was gradually move into northern from southern, it is associated with features of the city. Thirdly, the aspect of urban form, the hills above the city of Tel's shape was gradually coming down to the plains. So later, became a form of urban planning undisturbed terrain. fourthly, urban structure has slowly changed from the temple based city to palace based city.

Key Words : Sumer, Akkad, Assyria, Babylonia, Mesopotamia

1. 서론

‘강들의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라는 문명이 규명되고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 콜드웨이(Koldewey)에 의해 시작된 우르크의 발굴과 1927년에 시작된 울리(Leonard woolley)에 의한 우르의

발굴이었으며, 그들의 언어가 제대로 해석된 것은 1923년 아르노 포게벨이 「수메르어 문법의 기초」를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수메르’라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그 모습을 제대로 들어 낸 것은 불과 백년도 안 되는 시간이다.

이들이 수메르 문명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학

*Corresponding Author : Lee, Seok Woo (Hanyang University)

Tel: +82-70-7117-6776 email: leesw@drpnd.co.kr

Received November 7, 2012

Revised December 3,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자들에 의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탐구가 있었는데, 1843년 프랑스 폴 에밀 보타(Paul-Emile Botta)에 의해 아시리아의 신도시 코르사바드가 발굴되었고, 영국의 레이어드(Austen Layard)에 의한 님루드의 발굴, 1899년 독일인 콜데바이(Robert Koldewey)에 의한 바빌론의 발굴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양한 도시가 발견 되었고 결국 1900년대 들어 인류최고(最古)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밝혀졌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외부와의 교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여러 개의 문명이 교차되며 발달하였다. 이는 사막으로 보호되어 하나의 문명이 발달하였던 이집트와는 반대되는 특성으로, 서기전 5000년에서 4000년을 전후로 수메르인들이 정착한 이래 역동적으로 종족과 문명·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 변화에 따라 도시의 입지와 형태, 성격이 변화해 왔음은 당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해, 서기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 의해 멸망한 바빌로니아문명까지 3천여년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도시들을 비교하여, 그 변천과정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르크기로 분류되는 서기전 3800년 전을 그 기점으로 아시리아 문명의 멸망기인 서기전 612년과, 바빌로니아 문명의 멸망기인 서기전 539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북쪽으로 현재 이라크 북부의 거점도시 모술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바스라와 그 주변의 충적평야지대를, 동쪽으로는 이란의 자그로스산맥 서편과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까지로 설정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였던 40여개의 도시 중 비교적 규모가 있으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13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후 시리아와 이란 지역에 대하여 2006년 2월, 2008년 1월, 2011년 1월 3차례에 걸쳐 현지답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라크 지역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유물이 보관 연구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문헌과 대영박물관 및 루브르박물관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

2.1 지리적 특징

티키동부 에르주룸에서 시작된 유프라테스 강은 남으로 내려와 시리아의 알레포 인근에서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어 바그다드 방향으로 내려와 남쪽으로 활모양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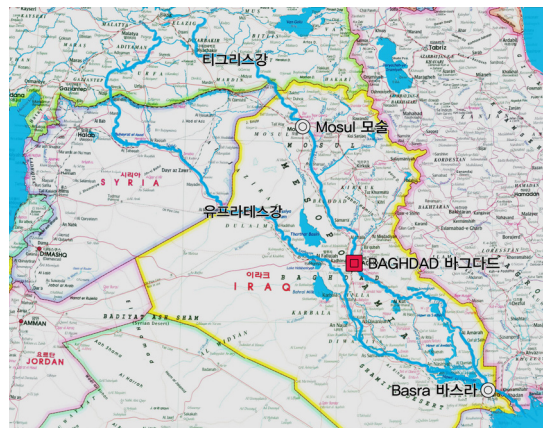
며 페르시아 만에 도착한다. 티그리스 강 역시 티키동부에서 발원해 유프라테스 강을 거울에 비춘 듯 동쪽으로 활모양을 그리며 모술과 바그다드를 거쳐 페르시아 만에 도착한다.(Fig. 1) 강들이 페르시아 만 가까이 도달할 때 좁은 ‘마쉬’ 라는 거대한 갈대 늪을 만나게 되며 주변지역은 충적평야로 변하게 된다. 두 강의 서쪽으로는 지중해와의 사이에 사막이 형성되어있고 오른쪽으로는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자그로스산맥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중해 주변의 풍부한 자원과 자그로스산맥 주변 유목민족의 이동은 강과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거쳐 활발한 문명의 성장촉진요소로 작용하였다.

2.2 시대별 민족의 변화와 특징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한 시기는 정확치 않다. 점토로 물표를 만들고 그 표면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전 4000년경의 일이고 서기전 3100년경부터는 쉐기문자를 사용하며 기록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메르 인들은 초기 자연현상에 의지하여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을 만들어 그들에게 무사를 기원하였으며, 점차 충적평야를 다스리기 위하여 소규모의 운하를 파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도시마다 권력자가 등장하고 우르크와 우르 같은 가장 강력한 도시들이 연맹체를 주도하였다.

서기전 2335년경에는 서쪽지역의 사막화로 셈족의 동진이 이루어지면서 사르곤이 메소포타미아 중부에 아카드라는 도시를 세워 왕조를 창시하고, 남으로 페르시아 만에서 서쪽 지중해연안까지 지배권을 확보하는 세계최초의 제국을 형성하였다.



[Fig. 1] Geography of Mesopotamia region

왕위다툼으로 내정이 혼란스러웠던 아카드왕조는 서

기전 2150년경, 메소포타미아 동쪽 자그로스산맥에서 구티족이 침략하여 멸망하였다. 그 후 약 40년 뒤 메소포타미아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국가 우르(우르 3왕조)를 중심으로 수메르 도시국가 연맹체가 다시 형성되었으며, 약 100년간 지속된 우르 3왕조(서기전 2112~2004)시기에 수메르문화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우르 3왕조 이후 메소포타미아에는 셈족의 일원인 아모리족이 들어왔다. 아모리족은 함무라비 집안을 중심으로 바빌론을 메소포타미아의 중심도시로 세웠으며 이 시기 수메르의 지적문화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로 전승되어 그 주변문화인 히타이트, 우가리트, 히브리, 고대 그리스 등으로 전달되었으며, 성서로부터 유럽의 중세시대까지 문학작품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조철수, 2003).

같은 시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루트에 셈족들의 도시가 중계무역에 뛰어들어 도시의 세를 확장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시 셈족의 일원인 아시리아의 초기 왕조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아시리아왕조는 서기전 885년경 주변지역을 정벌하며 아시리아 제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남부로는 갈데아왕조가 서기전 626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을 형성하며 메소포타미아 지역 말기문명을 꽃피우다 서기전 539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다. 광의적 의미에서 페르시아는 자그로스산맥 동쪽에서 발원하여 수메르-아시리아, 바빌로니아로 연결되는 문명을 상당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결선상에 있으나 지리적으로 자그로스산맥에 의해 단절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 도시의 생성과 변천과정

3.1 서기전 3800~2004년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수메르 도시의 특성

메소포타미아 지역 최초의 흔적은 서기전 5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바이드기(금석병용기, 서기전 5100~우르크키까지)의 흔적에서 출발한다.

수메르의 도시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구 정착한 순간부터 최초 도시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은 서기전 5800년부터 시작되었다. 도시의 등장이 비교적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긴 했으나 도시가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현상들이 도시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Marc Van De Mieroop, 2004).

수메르지역의 도시문화가 발생된 시점은 일반적으로 우르크키로 분류되는 서기전 3800년을 그 기점으로 하며 우르 3왕조가 멸망한 서기전 2004년을 그 종점으로 하고 있다.

3.1.1 도시의 기능적 특징

도시가 어디서 최초로 시작했는가에 대해 존리더(John Reader, 2004)는 공동체내에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 착안하여, 전업 장인, 상인, 사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도시이고 주로 농부들이 거주하는 곳을 마을로 구분하였다. 즉 전문성을 가진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도시와 마을을 구분하는 정의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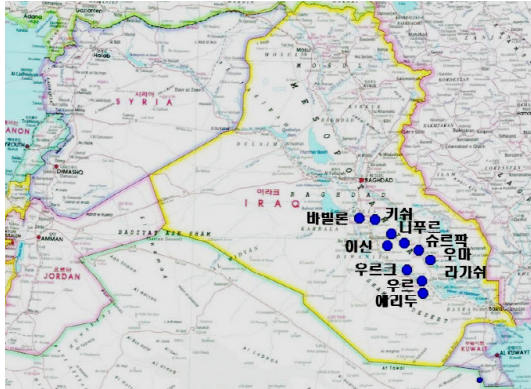
초기 역사시대의 수메르의 도시를 살펴보면, 분화된 4가지의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경제적 재분배의 중심지였고, 이데올로기 상으로는 사원과 궁전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왕을 위한 군대가 조직되었고, 정치상으로는 국가의 조직력이 한데 모여졌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주변지역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집중된 초기 수메르의 도시화에서 나타나는 눈에 띄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서기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완벽한 형태의 도시문화가 존재했었다. 문자, 기념비적 예술품과 건축물, 도기와 같은 물품의 대량생산 등 기술적 혁신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업적물을 근거로 인류학자인 차일드(V. Gordon Childe)는 수메르의 초기 도시들과 그 당시 다른 마을들을 구분 짓는 10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1. 인구의 집중과 규모
2. 농업 종사자와 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3. 왕에게의 세금 납부 여부
4.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유무
5. 사회 계층화 및 지배 계급 유무
6. 문자의 존재유무
7. 정확하고 예언적 과학의 등장
8. 예술적 표현의 유무
9. 외부와의 교역
10. 혈족 관계가 아닌 계급 관계

이처럼 도시를 구분 짓는 기준의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수메르의 도시들에서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 것을 보더라도 도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현상들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Marc Van De Mieroop, 2004).



[Fig. 2] Sumerian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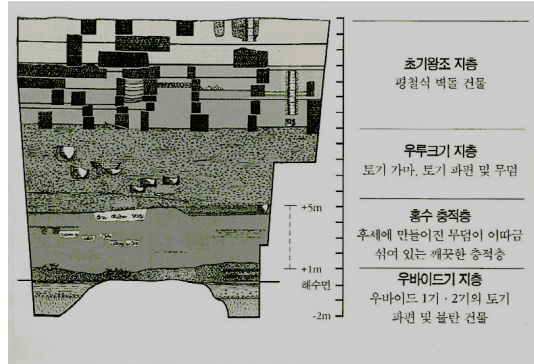
3.1.2 입지적 특징

도시의 입지적 특징으로는 수메르의 도시들은 모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Fig. 2) 좌표 상으로 볼 때 5개의 사례도시 모두 동경 45°와 46°사이이며 북위로는 30°와 32° 사이에 모여 있다. 이 지역은 습지대인 ‘마쉬’의 서쪽지역으로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 만과 가까워지며 유속이 느려지는 충적평야지대로서 이는 초기도시의 형성과정에서 충적평야를 배경으로 한 농업에 기초하였으며, 과거부터 발달된 운하는 도시와 도시간의 기초적인 교역에 의한 도시 간 상호교류와 연맹구조의 배경이 되었다.

3.1.3 형태적 특징

도시들은 대부분 텔(Tell)이라는 구릉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구릉이라기보다는 인공적인 구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우르의 경우 우르크기의 토기들이 지하 11미터 깊이에서 발굴(데이비드 롤, 1998)(Fig. 3)되었으며 니푸르의 경우는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인안나 사원의 경우 22번의 재건축 과정(Enrico Ascalone, 2007)이 있었고, 에리두에서는 ‘지혜의 신’ 엔키에게 바친 고대사원에서 17단계에 이르는 사원의 변천사(김산해, 2003)를 확인하였다. 초기도시를 만들 때 수해를 견뎌내기 위해 갈대 위에 인공적인 언덕을 만들어 신전 등을 건축했다.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후에 건물이 파손될 때마다 그 위에 부지를 정지하고 다시 짓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현재와 같은 텔의 모습으로 갖추어 갔다(Marc Van De Mieroop, 2004). 이는 에리두나 라가쉬, 우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되

며,(Fig. 4)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외연적 특성과 도시들의 발굴결과에서 알 수 있다.



[Fig. 3] Strata section of 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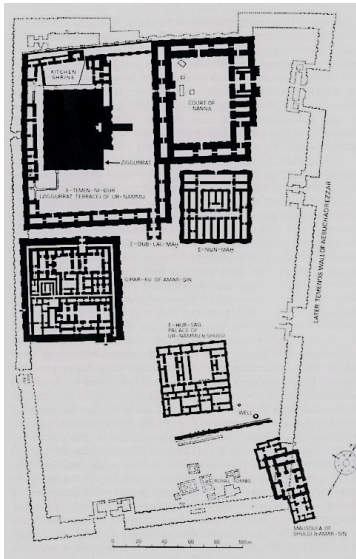


[Fig. 4] Seen from the sky to Ur

3.1.4 건축적인 특징

도시들은 왕궁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을 위한 사원이었으며, 왕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수메르 최초의 도시 에리두에 대해 아카드 제국의 필경사가 필사한 ‘수메르 왕명록’에는 “하늘로부터 왕권이 유래되어진 후”라고 기록되어 있다(Gwendolyn Leick, 2002).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이며 매년 도시의 통치자는 신과의 접촉을 증명하기위해 성혼례 행사로 일주일 이상 지구라트의 신방에서 여사제와 함께 지냈다(조철수, 2003). 따라서 도시의 중심은 언제나 신을 맞이하는 지구라트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왕의 궁전은 신전에 딸린 부속시설에 불과하였

다. 우르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왼쪽상단이 지구라트이고 오른쪽이 난나의 법원, 오른쪽하단 따로 떨어져있는 건물은 우르남무와 술기의 왕궁이다.(Fig. 5) 심지어 종교의 중심지로서 오랜 기간 그 명맥이 유지된 니푸르의 경우는 ‘최고의 신’ 엔릴의 신전을 비롯해 22개의 성지가 있었다(Gwendolyn Leick, 2002).



[Fig. 5] Ziggurat of Ur and the palace

3.2 서기전 2600~1600년 메소포타미아 중부 지역과 지중해 사이 교역도시들의 특성

서기전 3천년경 우가리트와 같은 셈족의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자리를 잡고 해상 교역루트를 개척하였고, 서기전 2500년경부터는 서아시아 내륙에 도시들을 건설하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에 도시를 건설하여 무역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며 최초의 교역루트를 구축하게 된다.

지중해연안에서 해양교역의 중심지로 활동하던 비블로스나 우가리트에 비해 좀 더 내륙으로 들어오는 에블라나 마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교역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기전 2335년에는 사르곤에 의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부에 아카드가 도시국가나 연맹체 수준이 아닌 페르시아 만에서 지중해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을 형성하게 된다.

3.2.1 도시의 기능적 특성

에블라는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하마로 가는 길의 동쪽에 있는데 과거 중요한 대상으로에 위치했음은 물론 현대

의 도로상에도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는 농업의 기능보다는 목축이나 상업의 중심지였다. 당시 에블라의 경쟁도시는 100여년의 전쟁을 치루기도 했던 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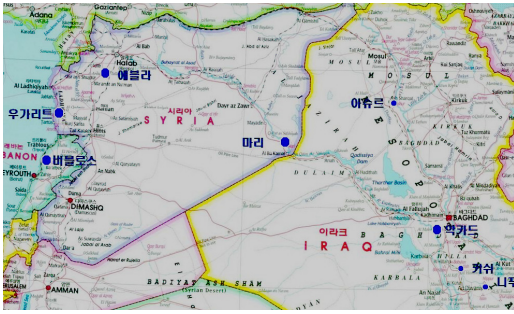
에블라는 직물, 도자기, 보석, 금속물질 그리고 나무로 된 가구 등 중요한 물건들을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다. 또한 레바논에서 생산된 목재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는 중계무역의 거점이었다.(Fatima Joud-Allah, 2004).

한때, 우르크, 우르에 걸쳐 지배권을 확보한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던 마리의 경우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와 시리아 사이의 교통을 제어하기에 좋은 곳에 입지하여 지중해로 연결되는 주요길목의 에블라와 경쟁관계를 유지하였다(Peter M.M.G.Akkermans, Glenn M.Schwartz, 2003).

두 도시 모두다 주요산업이 목축과 무역이 중심이었으며 주변지역의 도시인 알레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론과 강한관계를 형성했다는 기록이 점토판 형태로 발견되었다.

3.2.2 입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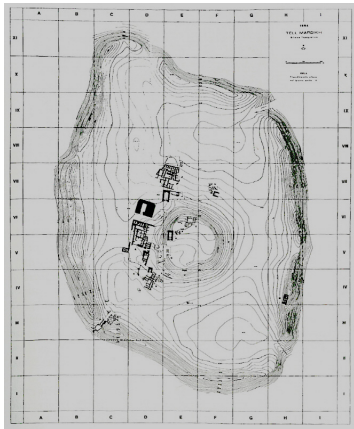
에블라에서 마리까지 연결되는 동서간의 루트는 서쪽으로는 지중해변의 우가리트에서부터 시작해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루트이다. 이 루트의 남쪽으로는 지중해변 현재의 트리폴리에서 흠스를 거쳐 예부터 오아시스도시로서 중계무역의 거점이었던 팔미라를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오아시스루트가 있으며, 이 두 개의 루트는 유프라테스강변의 현대도시 자와르에서 만나 강변을 따라 마리에 이르게 된다. 계속 동남쪽으로 강변을 따라가게 되면 바그다드에 도착하는데, 아카드는 바그다드 근방에 있다. 이 루트는 현재에도 이라크와 시리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간선도로로 사용되고 있다.(Fig. 6) 좌표 상으로 볼 때 위도의 경우 세 도시 모두 북위 33°에서 35°사이에 있어 수메르의 도시들보다 북쪽에 위치하며 경도의 경우 서쪽으로 약 4°씩 이동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약 삼백에서 삼백오십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지중해지역과의 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상로(隊商路)상의 중계 거점도시로서의 입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위도 측면에서는 층적평야에 의지해 농경과 운하를 이용한 소규모의 상업기능을 지닌 초기형태의 도시기능이 점차 주요지역과의 광역적 무역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유리한 위치에 입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Fig. 6] Major cities of the Semitic

3.2.3 형태적 특징

에블라의 면적은 50헥타르 규모로 청동기시대부터 형성된 도시의 언덕은 도넛모양의 외부언덕과 중앙의 성채 영역으로 구분된다. 도시 내 인구는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외부언덕은 30미터 두께의 외벽과 깊이 20미터의 해자로 되어있으며, 네 개의 문으로 뚫려 있다(Ross Burns, 1994). 성채는 중앙의 언덕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대한 텔이 형성되어있어 외곽을 이루는 외부언덕의 텔 안에 내부언덕의 텔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Fig. 7)



[Fig. 7] Ebla's place

마리 역시 유프라테스 강변에 높은 둔덕을 이루고 그 정상에 도시의 중요기능들이 들어서 있다. 두 도시의 텔의 모습은 수메르의 도시에서 보여주는 텔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에블라의 텔이 도시의 시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마리의 텔은 성곽으로 둘러 쌓여있지 않아 도시의 중심부로서 왕궁과 종교적 중심지가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부로 넓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4 건축적 특징

에블라의 성채 내에는 언덕 서쪽측면에 두 개의 궁전이 건설되어있다. 서측으로는 왕자의 궁전이라 불리우는 궁전이 있으며, 언덕위로는 왕궁 터가 있다. 이쉬타르 신전은 주로 연회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쪽궁전과 함께 위치해 있는데, 지대도 낮은 곳으로 옮겨져 있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왕궁의 규모보다 훨씬 작다.(Fig. 8)

마리의 경우 중앙에 짐리-림의 왕궁이 있으며, 왕궁의 서쪽부근에서는 빵이나 치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테라코타 거푸집이 있는 부엌, 저장고 혹은 벤치들이 있는 필기학교로 보이는 곳 등이 있다. 왕궁의 가장 높은 부분인 남동쪽 부근에서는 종교적인 영향을 띠는 신성한 구역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샤카나쿠 왕의 궁전이 흔재되어있다.(Fig. 9) 가장 중요한 이쉬타르 신전은 왕궁의 서남쪽에 작은 규모의 터만 발견되었다.



[Fig. 8] The temple of Ebla



[Fig. 9] The temple of Mari

3.3 서기전 2000~539년 메소포타미아 중·북부지역 아시리아/바빌로니아 도시들의 특성

아슈르의 제87대 왕 티글라트 필레세르(서기전 1157~1077년)에 이르러 아슈르는 북쪽으로 아르메니아,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과 남쪽의 바빌론을 정복하여 명실 공히 아시리아 제국으로의 면모를 갖춘다. 제101대 왕 아슈르나시르팔 2세(서기전 885~858년)에 이르러 국세를 더욱 강화하고 비좁은 아슈르를 떠나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9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님루드로 왕도를 옮겼다.

아시리아 말기의 내분을 틈타 바빌론에서는 칼데아의 왕자 나보폴라사르가 독립을 선언하고 서기전 626년, 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아의 왕국을 건국한다. 그리고 북쪽 메디아 제국의 키악사레스 왕과 동맹을 맺고 서기전 612년 아시리아를 남북에서 협공하여 멸망시킨다(정진국, 1999).

3.3.1 도시의 기능적 특징

아시리아가 위치했던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들은 남부지역 수메르의 도시들과는 다른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부지역의 도시들은 남부지역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농업, 상업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상의 필요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Marc Van De Mieroop, 2004). 기본적인 도시기능의 수행에 더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도시는 제국의 수도기능이 더 해졌으며 그러기 위해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조형물들과 건물들이 들어섰다.

3.3.2 입지적 특징

아시리아인들의 첫 수도인 아슈르는 당시 동쪽으로 향하는 주요 대상루트의 결절 점에 있었다. 현대의 도시 모술과 아시리아의 2, 3, 4번째 수도인 님루드, 코르사바드, 니네베가 모두 한 지역에 몰려있음은 그 의미하는 바가 특별하다(Fig. 10) 좌표 역시 아시리아의 네 개 수도는 같은 동경 43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에 있어서도 35에서 36도 사이에 위치한다.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중부에 위치해 동경 44도, 북위 32도에 위치해 셈족 최초의 정착도시 아카드의 동경 44도, 북위 33도와 인접해 있다. 이는 무역을 중시하던 교역도시들의 성격이 셈족의 정착국가 형태로 나타나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그 증거를 이들의 무역루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시리아의 주요 수도들이 위치해있던 지점은 지정학

적으로 남북방향과 동쪽방향의 주요길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요한 세 개의 무역루트가 존재 하는데 첫 번째 루트는 우르에서 니푸르를 거쳐 올라오는 루트였고, 두 번째 루트는 티그리스를 따라 북쪽으로 가는 루트이고, 세 번째 루트는 동쪽으로 엘람에 연결되는 루트이다. 아슈르는 동쪽에서 생산되는 주석의 교역권을 틀어쥐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무역업자들은 아슈르의 항구를 중계무역기지로 이용하였다(Amélie kubrt, 2007). 즉 티그리스 강의 북쪽이나 동쪽지역의 무역거점 역할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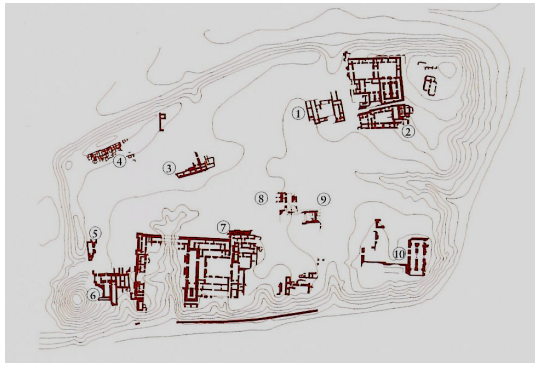


[Fig. 10] Assyrian and Babylonian cities

이에 반해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주요도시들로부터 450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전통적인 교역루트인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쪽의 지중해 도시들과의 교역거점으로 자리하였다. 당시 바빌론은 세계최대의 국제도시로 도시규모와 번창함에 대해 그리스의 여행가이자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바빌론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서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14마일에 이른다. 거대한 규모와 함께 비할 대 없이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이기도 했다. 해자를 파서나온 흙은 아스팔트와 섞어 벽돌을 구워 성벽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황금제단이 있는 신전과 지구라트로 이루어진 도시중심부와 호수, 운하 등이 건설되어 있었다. 25만의 인구에 화려하게 장식된 여덟 개의 커다란 성문을 갖춘 이 도시는 그 규모가 너무 커 바빌론의 외곽이 키루스의 수중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즐기던 도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한다.”(헤로도토스,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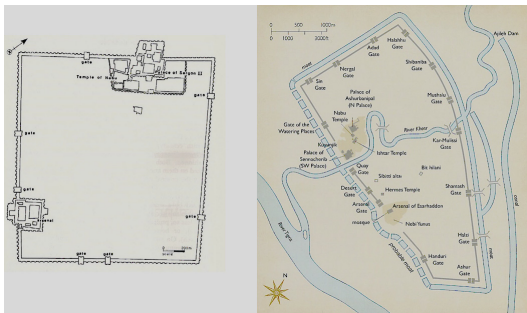
3.3.3 형태적 특징

바빌론은 평야지대에 건설된 대신에 단단한 두 개의 성곽으로 보호되었다. 과거 텔이라는 구릉지에 도시를 건설하던 방법이 바뀐 것이다.



[Fig. 11] Nimrud's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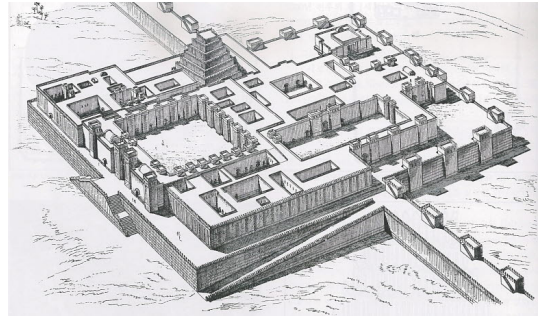
아시리아의 수도 아슈르에는 티그리스강변 비탈에 세워져 있었다. 지형적으로 초기에 도시의 입지를 결정할 때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러나 점차 도시의 세가 확대되면서 님루드로 이전하는데, 님루드는 서기전 1274년 아시리아의 제77대왕 샬마네세르 1세가 칼락(Kalakh) 이라고 불리는 신도시를 건설했던 곳으로 서기전 3천년 경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며, 칼락의 건설 이후 서기전 885년에 즉위한 제101대 왕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칼락을 재건하고 이름을 님루드로 바꾸어 아슈르나시르팔 왕궁을 건축한 다음 왕도를 옮기게 된다. 하기에 이 도시 역시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전통적인 텔에 입지해 있었다. 아슈르와 다른 점은 아슈르가 성곽을 건설하고 도시의 구역을 한정짓는 반면, 님루드는 텔 위에 도시의 주요기능인 왕궁과 신전만을 건설하였다.(Fig. 11) 하지만 사르곤 2세에 의해 세워진 세 번째 수도 코르사바드(Fig. 12)와 그의 아들 센나케립에 의해 건설된 네 번째 수도 니네베는 평야에 건설되었다.(Fig. 12) 텔의 형태에 따라 계란모양으로 만들어지던 전통적 도시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인공적인 성곽에 의해 보호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Fig. 12] Khorsabad and Nineveh's floor plan

3.3.4 건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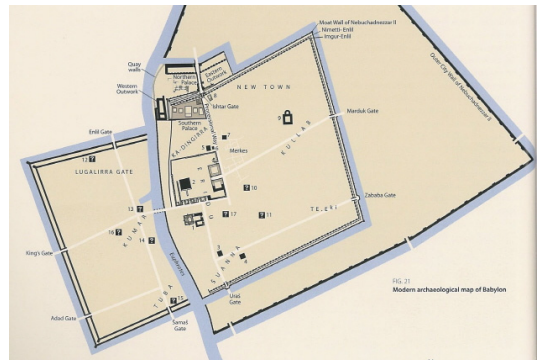
사르곤 2세가 니네베 북쪽으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수도 코르사바드를 건설할 때에는 대제국에 걸 맞는 새로운 도시를 원한 것 같다. 성곽의 네 면에는 각각 두 개의 성문이 만들어졌고, 요새화된 성벽 내부에는 격자형 도로가 구획되었다. 건축가 토마스가 복원한 궁전의 복원도를 보면 왕의 거주지 주변으로는 온갖 부속건물들이 입지했으며, 그중 지구라트는 왕궁의 중요한 부속물이었다(Gwendolyn Leick, 2002).(Fig. 13)



[Fig. 13] Restoration of the Khorsabad

또한 성곽은 님루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라마수(신들보다 낮은 신분의 초자연적인 존재들로서 신들의 특권 중 몇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의 조각품이 신들을 대신하여 도시를 수호하였다.

니네베는 북서궁전인 아슈르나바니팔 왕의 궁전과 남쪽궁전인 센나케립의 왕궁이 발견되었는데 71개의 방에서 2천여개의 부조가 발견되었다. 주요 신전인 나부 신전과 이쉬타르 신전은 두 왕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Fig. 14] Babylon's floor plan

바빌론은 에나멜을 칠한 벽돌로 만들어진 북쪽의 이쉬타르 문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행진로가 건설되었으며, 그 옆으로 중요시설인 네부카드네자르의 남쪽궁전과 궁중정원이 건설되었다. 바벨탑으로도 불리는 바빌론의 지구라트는 궁전에서 6백미터 남쪽에 위치하며, 그들의 주신인 마르둑의 에사길 사원과 마주보는 형태를 취해 왕궁과 사원의 공간을 분리해 놓았다.(Fig. 14)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한 도시별 전성기시대의 도시연표는 그림과 같다.(Fig. 15)

년 (서기전)	5000	4000	3000	2000	1000	
시대구분	위세르도기 신석기시대 (4000-3100)	황금시대로 신석기시대 (3100-2900)	황금시대로 동석기 (2900-2335)	약속시대로 신석기시대 (2335-2150) 신석기시대 과일밭과 사냥 (2122-2004)	약속시대로 (1800-1600)	약속시대로 (1157-1026)
수메르	엘리두	대용수기				
	우루크	2800				
	라기쉬	2520 2109				
	우루	2122 2004				
초기왕국	니푸르	3000 2000				
	아기드	2335 2150				
백발로니아	막	2600 2300 1810 1750				
	엘빌	2400 2240 1850 1800				
	아인-카라	2017 1794 1157 1026				
앗시리아	바빌론	1800 1600 626 539				
	아슈루르	2000 1800				
	남부도	885 722				
	코르세바드	722 688				
니네베					688 612	

[Fig. 15] Chronology of Mesopotamian major cities

본 연구를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역 도시들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 도시들의 발달에 있어서 초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의 수메르 인들을 중심으로 자연적 조건에 충실한 농경문화를 이루었으며, 점차 도시간의 교역이 발달하며 교역중심의 도시들이 생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발기에는 제국의 성립과 강력한 왕권 하에 국제도시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기능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농업의 중심지와 경제적 중심지, 종교 중심지의 역할이 뚜렷했다. 남부지역의 경우 도시들이 근접해 있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겹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농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역지점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정형태를 띠는 교역지점들은 종교, 군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북부 지역 도시들은 농업보다는 무역, 정치, 군사, 종교와 같은 기능들의 역할이 우세했다(Marc Van De Mieroop, 2004).

서기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 남부 수메르의 도시들은 이를 위해 도시간의 연맹체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였다. 이에 반해 서기전 2600~1600년 사이 주요 대상로의 길목에 위치한 셈족의 도시들은 상업과 무역활동을 통해 그 세를 확장하였으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을 통해 도시를 확장하였다. 서기전 1200~600년 사이의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와 중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도시들은 제국의 중심도시로서 군사 및 무역도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하였다.

둘째, 도시의 입지적 측면에서 층적평야에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메르의 도시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집중되었고, 초기셈족의 도시들은 주로 서쪽 지중해 방향의 교역루트 상에 위치하였으며,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도시들은 지중해 방향뿐만 아니라 북이나 동쪽으로 뻗어 나가기 쉬운 결절점에 입지하였다.

셋째, 도시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층적평야에 근거를 둔 수메르의 도시들이 수해를 피하기 위해 언덕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도시의 파괴와 생성이 반복되며 텔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구릉이 생성되었고, 이러한 형태는 셈족의 도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시기에 와서는 평지에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즉 자연순응형 도시건설이 인간의 의지에 의한 계획도시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넷째, 건축적 측면에서는 수메르의 도시들이 자연현상을 중요시하는 농업적 기반에 따라 지구라트와 신전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본 반면 셈족들은 상업적, 군사적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어 점차 지구라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궁중심의 도시를 이루게 된다. 지구라트가 중심이 된 우르(Fig. 5)와 왕궁이 중심이 되고 지구라트는 부속시설로 변한 코르사바드(Fig. 14)의 도면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차이가 들어난다.

인류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 문명은 농업중심의 도시로서, 이를 위해 신화를 만들고 신전을 건설하며 도시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운하를 만들고 상업활동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도시의 발달은 조금 더 먼 주요지역과 도시간의 교역을 만들어 내었고, 이 기능은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에 있는 셈족의 도시들이 담당하며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를 형성하였다. 문명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제국이 형성되면서 군사적 기능과 왕권이 강화되어 도시의 모습은 신전중심에서 왕궁중심의 도시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모습은 자연적 필요조건, 입지적 특성, 주변상황에 대한 도시의 역할, 그리고 종교관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위치와 형태가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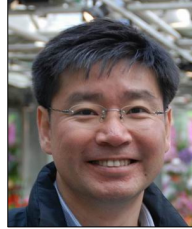
현대의 도시역시 입지와 기능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는 도시의 선택은 도시생명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Akkermans, P. M. M. G. and Schwartz, G. M., The Archaeology of Syria : From Complex Hunter - Gatherers to Early Urban Societies(Ca.16,000-300BC),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2] Ascalone, E., Mesopotam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3] Burns, R., Monuments of syria, London: I.B.Tauris. 1994,
- [4] Finkel, I.L. & Seymour, M.J., Babylon Myth and Reality,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08.
- [5] Gerster, G., Le passé au présent, Paris: Actes sud. 2003,
- [6] Gill, A., Gateway of the Gods, The rise and fall of Babylon, London: Quercus, 2008.
- [7] Herodotos, Historiai, Seoul: Bumwoosa, 2005.
- [8] Jo, Chol Soo, The understanding of ancient Mesopotamian culture, Religion and Theological Studies The 9th book, 1996.
- [9] Jo, Chol Soo, myth of Sumer, Seoul: Seohae Anthology, 2003.
- [10] Jong, Jin Gook, Mesopotamia Locate, Seoul: haeahn, 1999.
- [11] Joud-Allah, F., Syria Source of Civilizations, Damascus: Dar al-Hassad, 2004.
- [12] kramer, S. N., The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13] kubrt, A.,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Routledge, 2007.
- [14] Leick, G., Mesopotamia. The Invention of the City, London: Penguin Books, 2002.
- [15] Mieroop, M. V., The Ancient Mesopotamian 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16] Oates, J., Babylon, London: Thames & Hudson, 2008.
- [17] Reader, J., Citis, Seoul: Giho, 2006.
- [18] Rohl, D., The genesis of civilisation, Seoul: haenem, 1999.
- [19] Google Earth.
- [20] http://en.wikipedia.org/wiki/File:The_ancient_city_of_Mari.

이 석 우(Lee, Seok Woo)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석사)
- 2005년 8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재학

<관심분야>
도시계획

이 주 형(Lee, Joo Hyung)

[정회원]



- 1986년 2월 : 코벨대학교 (도시계획학박사)
- 1986년 8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시계획